

# 오페라 '운명의 힘' 발레 '파키타' ... 시민과 함께

8개 광주시립예술단체 일정  
 가요무대·어린이 클래식  
 시립교향악단 '말러' 연주  
 극단 '세자매' '멍키열전'  
 프랑스·중국·일본 공연도

오페라 베르디의 '운명의 힘'과 '박하사탕', 연극 체험의 '세자매'.  
 올 하반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 8개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다양한 무대로 시민들을 맞는다. 또 프랑스 보르도, 중국 시안, 러시아, 일본, 독일 등에서 해외공연을 펼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잔디마당에서 야외음악회 'GSO PROMS'를 개최하며 하반기를 맞이한다.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으로 관객을 만난다. 클라리넷 네티스트 채재일과 함께하는 이날 공연은 베버의 오페라 '오베론' 중 '서곡', '클라리넷 협주곡 제1번' 등으로 채워진다.  
 친근한 대중가요로 크로스오버 무대를 꾸미는 '가요무대'는 10월 11일 소극장에서 펼쳐진

다. 10월 24일 열리는 공연 '김홍재의 브람스: 관타를 모르는 예술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을 초청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제2번'을 공연한다. 11월 21일 '김홍재의 말러 교향곡 1번: 거인'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방송교향악단 솔로 호르니스트 카르스텐 캐리 더핀과 협연해 모차르트의 '호른 협주곡 제3번',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 등을 무대에 올린다.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이범주가 함께하는 '2019 송년음악회' (12월 26일)에서는 그리그의 '페르리트 모음곡',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 하이리이트 곡 등을 연주한다.  
 오는 25일 독일 뮌헨 가스타익 카를-오르프-잘에서 요셉 바스티안 지휘자, 바이올론방송교향악단과 연합 오케스트라를 결성해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곡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은 11월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조경현의 지휘로 선보인다.  
 이밖에도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 '클래식과 놀아요! : 현악기편'이 10월 17-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송선미의 호스트·연출로 진행되며, 청소년 교육 콘서트로 기획된 '심포니 완주하기' 시리즈 '멘델스존의 이탈리아'가 11월 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음악학자 이정분 박사를 초청, 아우슈비츠 내에서 작곡된 곡들을 연계해 들려주는 공연 '광주,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12월 11일 열린다.  
 광주시립발레단은 프티파의 로맨틱발레 '파키타'와 창작발레 '달빛아리랑', 김창욱 교수의 강연이 결합된 '파키타&달빛아리랑'을 10월 11-12일 공연하며, 10월 26일 일본 나가타현 시민문화예술회관극장에서 초청공연을 갖는다. '발레 갈라콘서트'를 11월 1일, 16일 양일간 진행하고, 연말이면 관객을 찾아오는 '호두까기 인형' (12월 19일-21일)을 무대에 올리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광주시립합창단은 12월 19-2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27일 대구콘서트 하우스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과 '송년음악회

초청공연'을 진행한다. 정기연주회는 11월 7일, 1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6-7일 '제3회 광주시소년소녀합창제'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진행하며 하반기 공연을 시작한다. 10월 18일 프랑스 보르도 대성당에서 해외 공연을 열 예정이며, 정기공연 '추억을 그리며'를 11월 23일 진행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의 협연 무대로 12월 19일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은 한가위 귀성객들을 위한 수시공연 '한가위 국악한마당'을 12월 광주 유스퀘어 야외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날은 '길놀이'와 '사자춤', '입체화' '사랑가' 등 공연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2019아시아국제페스티벌'을 기념해 11월 1-2일 러시아 소피 시리우스 영재센터에서 초청공연을 갖고 '부채춤', 창극 '홍보가' 등을 공연하며, 12월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 '송년 국악한마당'을 열고 판소리, 한국무용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중국 시안-한국 주간 초청공연'을 4일 시안TV방송국 광전대극원에서 진행하며, 12월 19일 '송년음악회'에서는 거문고-플루트 협주곡 '역동',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캐롤송'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은 연극 '멍키열전'을 11월 14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11월 21-23일 안동 체초프의 작품 '세자매'를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27-28일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최승환이 지휘봉을 잡고 소프라노 임세경, 테너 신상근, 바리톤 공병우 등이 출연하며, 10월 12-13일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도 공연한다. 11월 21일, 2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공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으로 제작된 이관용의 창작오페라 '박하사탕' 시연회가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일보 문예매거진 **에스날** 9월호



## '휴머니티'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비엔날레의 계절, 가을이다. 광주에서는 오는 7일부터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막을 올린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디자인비엔날레는 단순한 전시의 장을 넘어 삶을 위한 공공예술로 성장하고 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날' 9월호 특집은 '디자인으로 물드는 가을'이다. 10월 31일까지 '휴머니티'를 주제로 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화제작과 주요 프로그램 등 지면으로 미리보는 디자인비엔날레, 문화광주의 색깔을 바꾼 디자인비엔날레 레거시를 소개한다.  
 '에스날 초대석'은 옛 그림과 소통하는 즐거움, 미술평론가 손철주와의 시간이다. 손철주는 옛 그림속에서 옛 사람들의 사랑과 흥, 신명을 깎집어내 들려준다. BTS(방탄소년단)와 230여 년 전 조선 재상의 초상에서 공명된 맥(脈)을 찾는다.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와 함께 인문학의 보고(寶庫)인 옛 그림의 끝없는 바다를 향해한다.  
 에스날 9월호에서는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를 새롭게 시작한다. '싸목싸목'.. 듣기만해도 정감이 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이 단어는 '천천히'라는 뜻을 가진 전라도 방언이다.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남도를 둘러보자는 의미로 '싸목싸목 남도 한 바퀴'를 기획한다. 첫 목적지는 '빙그레 웃는(莞) 섬(島)' 완도다. 정정바다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일변지로 떠오르는 완도 곳곳을 둘러보고 완도가 자랑하는 전복이야기도 전한다.  
 불 꺼진 광주 상무소각장이 문화발전소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방치된 소각장을 시민들의 문화쉼터이자 지식놀이터인 도서관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다는 게 골자다. 기획 '상무소각장, 문화발전소 꿈꾸다'를 통해 상무소각장의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선진사례인 경기도 부천시 트빙커 B39를 소개한다.  
 영·호남 산악인들이 지난 8월 11-19일 7박9일간 중국 윈난성 하바산(해발 5396m) 정상에 함께 올랐다. 광주시가 후원한 이번 등반은 영·호남 산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향후 고산등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원정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3세대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에스날 기자가 함께 한 하바산 등반 동행기를 두 차례에 걸쳐 심는다.  
 이외에 현대무용계의 대모 김명순과 을 시즌 특급 소망수로 맹활약 중인 KIA타이거즈 투수 문정찬을 만나보고, '워라벨 시대, 문화관광이 뜬다' 세종로벨트,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현장을 찾아간다. 9월에 열리는 제27회 안방울 국악제와 관광전남에서 치러지는 9월 축제 소식도 함께 전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김창욱 교수



광주시립발레단

## 미술의 다양성 'White hole'

조선대 석·박사 과정 작가 20명 참여, 2~11일 조선대 미술관

지난 2001년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과정이 개설된 후 시작된 '순수정신-pure Spirit'전은 참여작가들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발표하는 의미있는 기획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변화는 미술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고, 현재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시를 기획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한, '다른' 작품들을 내놓고 그에 따른 담론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조선대 대학원 미술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 중인 대학원생과 수료생,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 교수 조운성·김유섭 교수가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가 2일부터 11일까지 조선대미술관에서 열린다. 대학이라는 아카데미안 환경과 동시에 이미 미술계에 발을 내딛고 있는 작가들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전시로 서양화 작가들이 참여했다.  
 전시 주제 'White hole'은 상대성 이론에서 흡입의 통로인 '블랙홀'과 상반되는 의미로, 미지의 4차원에 모든 것을 '발산'하는 개념을 뜻

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새로운 창작의 확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참여작가는 강민정·김다영·김미자·김연호·김용안·나수빈·박경희·박라희·백설·범지선·서병주·서현호·송지윤·왕하·이은영·이인성·정정하·한동훈 등 모두 20명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이다. 작가들은 구상과 추상의 조형적 연구, 다양한 매체와 질료적 실험, 동시대성을 담고 있는 디지털 시각 환경의 재해석을 통해 각자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해설을 쓴 소사라 평론가는 "새롭게 출발하는 ' 화이트 홀'에서 선보이는 신작은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꾀한 작품들로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과 조화, 미래지향적인 긍정의 에너지를 내포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박라희 작 '감성 스테이'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INNOVATION AWARDS 2016** **BIG INNOVATION CHILDREN'S CHOICE 2017**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만족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16 공식 명세서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특별 월 회원 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